

5월 14일 입국



허재광, 장소영 선교사의

소소한 **일본** 선교 이야기

5월 14일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수도인 도쿄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하게도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셔서 선교사로서 첫발을 내민 저와 아내를 열렬히 환영해 주셨습니다.

일본에서 첫 번째로 맞는 주일에는 협력 선교사로서 함께 사역하게 될 사사츠카그리스도교회에서도 너무 나도 기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. 환영식 당일 바로 사사츠카그리스도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 순수한 일본 영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 맞는 주일에는 태권도 시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태권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일본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.

5월 27일 월요일에는 요코하마라는 지역에서 어린이식당 사역에 참석하여 돕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일본에는 밥 굶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는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해 왔었는데 놀랍게도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어린이식당을 먼저 하고 계셔서 저희 부부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

사사츠카그리스도교회 환영식

다음세대 사역



어린이식당 사역

태권도 시범

